

합의추대 유력... 친노진영 우윤근, 비노 주승용·이종걸 거론

새정치 새 원내대표 9일 선출...누가 나오나

6일 등록, 7~8일 선거운동...계파 갈등 재연 우려 경선편 유인태·노영민·최재성 의원도 도전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오는 9일 선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규백, 진성준, 윤후덕, 권은희 의원을 선관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개최, 후보 등록은 6일, 선거운동은 7일과 8일 이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기까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대행한다.

새정치연합이 선관위 구성을 통해 원내대표 인선 원칙을 경선으로 내세웠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고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된다는 점에서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 형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조정식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 "여러 명이 나오면

경쟁할 수 있고, 합의로 단일 후보가 추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 추대 방식으로 원만하게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내 각 계파가 원내대표직을 놓고 힘 겨루기에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당 서열 2위이자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당내 현안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노(친노무현)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우윤근 정책위원장을 후임 원내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고, 추가 협상이 남아있다는 점도 추대론에 힘을 실고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이 범친노 진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가 친노 일색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계파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 의원이 10월까지 유족들의 참여가 담보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시킬 수 있는 정치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도 및 비노 진영에서는 이종걸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경선으로 간다면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4선의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유인태 노영민 최재성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이뤄진다면 관전포인트는 중도 온건파가 대표 주자를 내느냐다.

중도 진영이 정치적 결집력을 증명한다면 친노 진영과의 한 판 대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계를 포함한 강경 진보 성향의 범친노에서 원내대표를 배출한다면 비대위에 김한길, 정동영, 추미애 등 비노 인사들이 추가로 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 진영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마저 친노 진영 인사가 선출된다면 당은 상당한 내용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며 "친노 진영에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한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5개 기관 국정감사 받는다

7일부터 20일간 전국 672곳

작년보다 42곳 늘어 부실 우려

오는 7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모두 672곳으로 확정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 등 15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630곳보다 42곳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전 경기도 하남의 기상청 본청에서 광주지방기상청, 13일 오전에 국회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한다.

이어 16일에 안전행정부가 광주를 방문, 광주시청회의실과 광주시경회의실에서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17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국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 광주·전남 국정감사 일정표

날짜	상임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장소
10일	환경노동위	광주지방기상청	기상청
13일	환경노동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4일	환경노동위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16일	안전행정부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시청 시청
17일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	광주과학기술원	국회
20일	법제사법위	광주고법·지법 광주지방법원 광주고검·지검	광주고법 광주고검
	기획재정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21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 본부
22일	농축해수위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 공사

20일에 법사위가 광주를 방문, 오전엔 광주고법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 가정법원을, 오후에는 광주고검에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에 대해 각각 국감을 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같은 날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21일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

사를 한다.

보건복지위는 21일에 국회에서 국립소록도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2일에 울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24일 광주 평동·침단산단에 대해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계파정치 못 버티고...

첫 여성 원내대표 박영선 5개월만에 중도하차

계파가 없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겐 버거운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이를 이겨 내지 못했다.

국질 많은 세월호특별법의 긴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온 뒤 '세월호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후 결과에 관련 없이 사퇴한다'는 약속대로 '폭풍의 언덕' 위에 올라섰던 약 다섯 달의 기록을 뒤로 하고 제1야당의 원내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지난 5월8일 원내대표직에 오른 지 147일 만이자, 지난달 17일 탈당 파동 끝에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당무에 복귀한 시점으로 따져서 15일만의 '썩쓸한 퇴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주요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이후 7·30 재보선 참패의 늪에 빠진 당을 재건할 비상대권까지 넘겨받아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섰다.

하지만, 1,2차 세월호법 협상 추진 불발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파동 등을 거치며 당은 극심한 내용을 겪으며 혼돈 상태에 빠져 들었다.

이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강경파 그룹의 집중적 공격을 받으면서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회복불능의 큰 타격을 입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파동 와중에 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퇴 주장이 거세지자 '탈당 검토'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당의 만류 속에 '세월호 협상 수습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한 '시한부' 꼬리표를 달고 당무에 복귀했다.

그는 당분간 '와신상담'을 하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겠지만, 당장 '부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좌절이 고질적 계파정치의 희생물이어

서 정치적 재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법 협상을 재개, 3차 합의안 도출 시도에 나서면서 이미 사퇴문을 작성해 협상 내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세월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된 뒤 1일 당내에선 '유입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안산으로 내려가 단원고 유가족 면담을 갖고 "힘 닿는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10월말까지 남은 후속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보탤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안산에서 유가족 면담을 마친 뒤 상경하자마자 오후 5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만나 "지금 딱 돌아서는 게 맞다"며 사퇴 결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희망달빛
영호남 문화교류 대이벤트 프로젝트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 서울시청 앞 광장
▶ 2014년 10월 13일(월) ~ 15일(수) 3일간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로!

영·호남 농·수·특산물 문화를 입다!
영·호남 문화를 소개하고
농·수·특산물을 알리는 교류의 장!

주최 | (사)아시아문화 · 영·호남 상생포럼
주관 | 광주일보사 · 영·호남 · 每日新聞社
협찬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NH농협 · 수협 · SK

영·호남 농·수·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행정홍보 및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